

## IMF의 협조로 후회없는 경제회생을 이룩하기 바라면서

이 승 원\*

(\*평의원, 서울대 명예교수)

**문**인은 경제에 대해서는 문  
의한입니다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라는 자연원리를 심봉하는 과학적  
시각은 어느정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리에 근거 금번  
의 경제위기 도래의 원인과 그 회  
생책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이 현 경  
제위기를 고비용 저효율 구조 또  
는 정경유착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계  
가 안고 있는 큰 병폐임은 틀림없  
는 사실이다. 6.25 사변후 우리가  
소생하기 위해서 택했던 산업국으  
로 변신해 거듭난 현재까지 계속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이를 치유해  
야 하면서 현재까지 끌고 온 고질  
병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  
는 크게 성장하여 세계 11위권에  
오른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로 미  
루어 볼때 현재의 경제 위기는 이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  
되지 않는다. 금번의 위기는 90년  
대 초반에 있었던 일본의 엔고현  
상에 따라 수출이 급신장하게 되  
니까 수출 수요도 계속 신장될 것  
으로 예상되어 그에 맞춰 투자를  
확대했는데 일본이 95년 4월 1불

당 85엔의 정점에 달한 후부터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2년이라는  
단기간에 엔 가치를 50%나 평가  
절하 하여 현재 130엔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는 95년  
4월 1불당 762원 상태를 별 변동  
없이 지속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년 30%씩 증가하던 수출이 감소  
하기 시작 금년 초에는 그 성장률  
이 -8%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자를 투입해 증대  
시킨 생산 시설은 무이로 돌아갔  
고, 증설전의 시설조차도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생산한 것도 재고로 남게 되었다.

이런 형편이어서 96년도 경상수  
지도 2백억불은 초과하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로 인  
해 외화상환에도 차질이 생겼고,  
국내적으로는 돈의 샘줄이 막혀  
많은 기업들이 갈증을 외치기에  
이르렀으나, 은행의 물통의 물은  
이미 바닥권에 달하고 있는 형편  
이라, 은행은 역부족이었고, 재정  
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던 정부는  
묵묵 무반응이었다. 이 결과는 우  
리나라 경제계에 대한 국제적 신  
임 추락을 초래했고, 외국인 투자  
가들은 증권시장을 이탈하기 시작

했으며 그들의 환전으로 말미암아  
환율이 급상승했다. 설상가상으로  
종금사들까지 차입외채상환을 위  
한 환전에 나서는 바람에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치게되니 정  
부는 부랴부랴 IMF의 지원을 요  
청할 지경에 이르렀다.

만일, 엔고의 진행시기에 이루어  
진 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정  
부가 좀 억제시켰더라면, 엔저에  
따라 원도 평가 절하시켜 수출을  
증가시켰더라면, 오히려 신장이 지  
속되었을 것인데, 참으로 애석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IMF의 지원  
신청결정 직후, 일본은 곧바로 우  
리경제가 이 지경에 달한 것은 일  
본에 엔저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언급한 보도를 접했는데, 우리정부  
와의 판단력 차이가 너무 커서 대  
단히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 이르렀다할  
지라도 IMF의 도움을 받게 되어  
경제회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의도적인 것  
은 아니었으나, 환율도 상승되어  
95년 4월의 수출이 30%씩 증가하

던 선상에서 일본과 경쟁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고, 의체는 IMF의 협조에 의해 해결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경제실체인 금융, 기업, 가계가 정부의 정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침과 지도에 따라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빈발하고 통화유통이 막히는 것과 같은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상태는 경제회생의 큰 걸림돌이 될것인즉, 정부는 이의 제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도에 의할것 같으면,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경제시스템의 안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도 하고 있다하니, 이도 참고 했으면 한다.

그 안은,

- ▶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불량채권을 예금보험기구에 넘기고
- ▶ 예금 보험기구는 채권을 발행하고
- ▶ 정부가 재정자금을 동원해 이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IMF 자금변제를 지상 목표로 삼고 수출증진과 무역의 지출감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경제개체별 실행 지침도 작성 발표해서 이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계획수립중에 만일 목표 실천에 역작용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IMF 당국과 수시로 협의의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3% 성장률로서는 IMF 차입금의 상환이 기일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면 5%의 인플레이션은 경쟁상대국 환율변동여하에 따라 바꾸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리고 이미 예견되고 있다시피 경제회생과 차입금 변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화가 절대 필요한데 금융시스템의 개선을 동시에 시도한다는 것은 안정화를 해치므로 이를 경제가 회생되고 IMF 차입금이 완전히 변제된 후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점 등이다.

바라건데 금번 IMF의 협조로 경제위기가 회생되고 우리나라 경

제가 또다시 정상궤도에 진입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경제선진국으로 무난히 진입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승원(李承院)**

1923년 4월 30일생.  
1947년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56년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

1959년~1960년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1976년~1982년 원자력 비상임위원. 1974년~현재 당 학회 종신회원. 1977년~1978년 당 학회 회장. 1985년~현재 학술원 회원. 1988년~현재 전기협회 부회장. 현재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부 명예교수.